

≡ 名士칼럼 ≡

시위대에 쫓기고 매 맞는

民主警察 사랑과 미움

- 스스로 명예와 권위 회복에 용맹해야 -

세월이 변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생겨났다. 취객이 파출소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도 경찰은 달래야만 한다. TV화면을 통해 경찰이 시위꾼들에게 매 맞는 광경을 보고 배운 세대의 단면을 말해준다.

공권력의 령(令)이 서지 않는다고 한탄해 봐야 민주화 정부가 경찰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보여준 꼴이나 통탄할 노릇이다.

민주경찰에 사랑과 미움 교차

경찰이 도심을 유린하는 시위대의 방패막이 좁으로 비쳐지는 세월이다. 농민과 노조와 NGO가 집시법을 무시하고 교통을 차단하여 요란한 구호를 외치지만 경찰은 거의 무적이다.

법대로 따르라다 매 맞고 행여 사고라도 생기면 문책 당한다. 경찰 총수가 시위 잘못 막았다고 못 벗는 장면을 봤고 참다 못해 명예와 권위의 상징인 경찰모를 반납하겠다는 울분도 본 적이 있다.

경찰이 민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니다. 민취 경관이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붙들린 경우는 차마 논프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이다. 총기를 분실하거나 탈취 당한 경우는 식은땀이 솟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일부라고는 하나 도대체 경찰이 어디다 정신을 빼앗겨 그런 추태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가. 민주경찰이 권위 다 뺏기고 주눅이 들었는가. 기(氣)가 꺾였는가. 경찰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미움이 교차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심정이다.

실정법 위반 전과자가 불법 연호

매 맞는 경찰을 보고 연민의 정이 솟구치지만 한편으로 못한 경찰이라 구박하지 않을 수 없다. 치안질서 바로 잡고 민생 돌봐 달라고 말해 줘야 불법 앞에 대책은 없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으니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가.

경찰도 하고 싶은 말이 오죽 많겠는가. 할 말 다 하면서 질서는 엄격히 잡고 노약자들 토틀히 보호해줄 능력과 권위를 보여줘야 경찰 아니겠는가. 우리네는 경찰 보다 시위대가 더욱 무섭게 보이는 세월이 결코 정상이라고 믿을 수 없다.

경찰의 고뇌를 속속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느 고위인사는 오늘의 경찰상이 추락한 것은 그만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것은 민주화 정권이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면서 민생경찰을 천직(天職)처럼 격하시킨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들은 민주화 투쟁정력을 밑천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자신이 실정법을 밥 먹듯 위반했던 버릇대로 불법, 무법폭력을 법대로 다스릴 자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시위대들도 이 같은 배경을 미리 읽고 그들을 기넌 언덕처럼 여겼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찰은 죽병이나 돌팔매에 멍들고 턱뼈가 부러져도 아무 소리 없이 경찰병원에 입원하고 가해지는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덮어씌우고 언론



배 병 휴 (월간 경제포럼 발행인)

은 이를 대서특필하니 TV 화면에는 경찰이 폭력집단으로 비쳐지고만 것이다.

전투적 시위대에 집시법 무력

한국의 노조와 NGO가 정치 권력화 되어 세계 최강의 시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홍콩, 일본, 미국 등지의 원정시위로 무서운 명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이들 시위꾼들은 반복체함을 통해 집시법이 무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미신고 집회나 불법, 유령집회로 공권력을 소모시키며 조종해 왔다.

이에 비해 경찰은 늘 긴장과 초조로 비상대기 하느라고 민생 치안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틈에 어린이 유괴범이 날뛰고 자살 소동자가 늘어나 "경찰은 어디서 뭘 하는냐"는 지탄을 받게 됐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치안 전문가 이야기로는 오늘의 정치적, 사회적 세태와 경찰의 팔자와도 깊은 상관이 있다. 경찰 한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500명을 넘어 기본적으로 역부족이니 경찰병력을 증원하여 300명 선으로 낮춰야 한다.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순경 보다 의무복무자인 전·의경이 훨씬 많아 전 경찰병력의 33%에 달하니 이를 단계적으로 줄여 가야 한다. 전·의경을 직업적 투사적 시위꾼들 앞에 방패막이로 내세워 효과적으로 저지하기란 어렵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게 된다. 알다시피 요즘 국민들은 벌과금 수준의 주택 보유세 물고 사고육비 부담하면서 세금을 더 낼 능력이 없는 형편이다. 따지고 보면 경찰이 당면한 고난과 시련은 팔자소관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도덕적인 면에서 마음속에 억한 감정을 그렇게 표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

스스로에게 분노해야 한다

혼돈의 세월을 살아온 6070 경험세대는 태생적으로 경찰을 무서워하며 신뢰한다. 나는 아기도 경찰이라면 울음을 그친다고 생각한다. 또 급한 일이 생길 때 경찰을 부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같은 오랜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느낌이니 예사로온 일이 아니다.

8·15 해방공간의 공란과 6·25의 참상을 경험한 세대는 경찰의 호국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인민군 치하에서 피난 곳간 경찰 가족들이 잔혹하게 학살당한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런데도 최근 과거사위원회는 제주 4·3사태를 비롯하여 여순반란사건, 대구폭동사건 등을 진압하면서 경찰이 흘린 피를 모독하고 남포당과 빨치산들의 반역행위를 미화하려 책동하니 끌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경찰 유가족들의 허망한 심정이야 말해 무엇하며 선배들의 명예가 짓밟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역들의 말 못할 심정은 어떻게

세월을 타하고 민심이 아속하다고 한탄할 지경이다. 그렇지만 오늘의 경찰이 있기까지 세월을 함께 살아온 6070세대의 안목로는 경찰이 스스로에게 분노하며 잘못된 팔자를 바르게 고치고 자 내서야 한다고 권고한다.

민주주의 선진국 경찰이 불법 폭력에게 매 맞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피 흘리며 나라를 지킨 경찰사가 매도 당한 경우를 듣지 못했다.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스스로 되살리고 지켜가야만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경찰복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며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띄어 주목을 받는 법이다. 처신과 행동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이 단호하고 용맹해야 한다.

유명 전직 경찰 간부가 선진국 경찰상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흙탕이나, 빙판이나 민생 패트를 맨"이라고 표현했으니 대한민국 경찰이 바로 이 길로 굳세게 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승진이나 인사발령에도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던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사례의 클로저로 퇴임한 상관이 옳고 당시 현직에 있었던 하관이 그르다고 비난 할 사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도덕적인 면에서 마음속에 억한 감정을 그렇게 표출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다.

나이 많은 부모가 장성한 자식을 보고 할 수 있는 말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못 보았던 옛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늘그막에 만나 손 맞잡고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며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평상심으로 오갈 수 있는 낙수끼리라면 어찌 글의 소재가 될 수 있겠는가?

故 손계천(孫繼天) 원로님은 경북, 전북 경찰국장님도 역임하셨고, 56년 6월부터 57년 3월까지 제15대 강원도경찰장을, 58년 9월부터 60년 3월까지 제 19대 강원도경찰장을 역임하신바 있는데 어른께서는 재임하면서 뱉지 못한 해안초소, 독거노인 등 많은 이웃들에게 강원일보 향토지 보내기 운동을 펼쳐 향토사랑정신을

이 애기는 지난 날 사 회질서가 일 시 암 했 던 시절 경찰 의 몸소 실천 하셨으며, 퇴 임 후 70.4.1~74.3.31까지 제2대 강원도 재향경우회장을 역임하시며 경 우회 업무발전에 열정을 기울이셨으며 그 후 73.3~79.2월까지 춘천소재 강원일보 사장을 두 번 연임하시며 언론창달과 향토사랑운동에 앞장서 헌신하시다가 지난날 산천초목 까지 호령하시던 어르신도 인생의 유한함 앞에서 는 말이 없으신채 2005년도 경기도 제2의 고향에서 숨을 거두시고 국가와 향토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셨다.

이 어른이 경찰국장을 퇴임하시고 얼마쯤 지나 백발을 앞세운채 지프차를 손수 운전하여 대관령을 넘어 강릉경찰서 성산지서를 지나다 당시 현직에 있던 동기생 박 경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박경사가 퇴 임한 동기생 경찰국장을 보고 처음 던진 말이 "자네도 많이 늙었군"이 었다 한다.

예로부터 우리 속담에 말은 골길 수록 불어나고, 밥은 골길 수록 줄어든다고 한 것 처럼 불어나는 말이 없기에 그 당시 나는 경찰에 입문도 하기 전의 에피소드인데도 지금까지 전해 오기에 알게 된 것이다.

박경사라는 사람이 어떤 깊은 감정이 있었기에 도덕적으로 과오를 범하며 뻔히 게임에 질것을 알면서도 퇴임한 직속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마음이 편했을까?

그리고 직접 직격탄을 맞은 퇴 임 경찰국장 마음이야 오직 쓰라렸을

잘 마시면 보약이지만 ...

박도문 (광주경우회 이사)

때 는 2002년 10월 10일 10 일로 소 급하여 4 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 해를 거쳐 장가계, 하룡공원 및 항 주 등을 단체로 觀光하고 歸家하여 21시 30분쯤 寤寤할 무렵에 갑자기 아랫배에 痛症이 오기 시작했다. 한 밤중이라 病院에 갈수도 없고, 취침 하고 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好轉되기는커녕 더욱 통증이 심해져 10월 17일 07시경 시내 진내과에서 診察 결과 慢性脾臟炎으로 判明되었으며, 10월 26일 삼성 서울병원에 가서 다시 精密 진단결과 역시 만성세장염으로 나타났다. 原因을 分析하자면 나의 食生活 習慣이 육식, 고지방식, 탄 고기 등 發癌物質을 比較的 많이 攝取해 왔으며, 특히 不規則한 飲酒로 健康 유지에 赤信號를 초래하게 되었다.

세장염과의 투쟁

세장염 신고를 받은 이후 高麗手 指醫學을 접하게 되었다. 고려수지 의학은 인체의 장부 虛實을 진단하여, 氣脈에 刺戟이나 補劑를 하여 發汗을 比較的 많이 攝取해 왔으며, 특히 不規則한 飲酒로 健康 유지에 赤信號를 초래하게 되었다.

술이 아무리 좋아한들

당나라의 詩人 이태백은 '술 없는

가? 돌이켜 보면 지금 생각해 보아도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전.현 직 모두에게 낮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관계를 떠나 구전되어 오는 것을 보면 박경사 측 가까운 야당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여당측 국회의원 요청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이익 정보 인사가 단행 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나 유 추해 본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육신의 상처는 다스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치유될 수 있지만 마음에 맺혀진 상처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거나 치유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그후 1971년도 제 34대 박병준 경 찰국장(육사 8기)이 재임하실때 퇴 임하신 손계천 어른은 강원도 재향 경우회장(당시는 재향경우회 강원도 지부장)을 하시며 공.사석에서 자유롭게 만나 인생무상을 여담(餘談)으로 얘기하시다가 어쩌면 당신도 어쩔 수 없어 하시면서 새삼 지난 날의 불꽃이 튀면서 당시 경찰 국 직원들만 특별교양을 받는 해프 닌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는 이제 와서 이 글을 통해 어느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명예를 훼손하고자 함은 더 더욱 아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 는 일에 동참하면서 한술의 밥을 먹

고, 우리는 목이 마를 적에 알게 모르게 도천(盜川)의 물을 함께 마시 며 여경동락(餘警同樂)하였기에 누가 뭐래도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야 이 모진 경쟁사회에서 함께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어떤 경 우라도 전.현직이 한 목소리로 단합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말하고 싶 을 뿐이다.

경찰 독자적 수사권확보와 폭력 집단시위에 대처할 공권력 확보방 안 등 수많은 난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 들이다.

이제 현직은 퇴임하신 선배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훈미한 사회 치안확보를 위해 노고와 많았었다 는 따스한 말 한마디와 지난 날 부 끄러움이 다스 있었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 치우가 개선된 것도 선배 님들 덕분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경우들은 『우리가 뭐! 한게 있는가?』

늙은 후배들만 믿겠네.』 라고 형님 먼저 아우먼저 서로 호양정신을 발휘할 배려하는 마음이 인색하다면 아무도 우리를 선포 도와 줄 세력이 없으며, 모두의 미래가 불투 명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알량한 권위의식과 제도권 밖에서 서성거리며 저마다 왕국을 건설하려는 아 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국가 안보에 빨간 비상등이 켜진 현실을 직시 하고 지체없이 대한민국 재향경우 회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자.

박도문 (광주경우회 이사)

스트레스를 肯定的으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모든 질병은 정신의 不安定에서 부터 발생되기에 정신 불안정은 심장의 흥분과 緊張狀態를 일으키고 곧 血液循環의 이변을 초래하여 취약한 장기에 질병을 발생케 한다는 원리를 깨달았다. 정신긴장은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임을 자각한 나는 이의 해소에 최선을 다했다. 음악을 감상하거나 혼자서 컵노래를 부르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방법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百折不屈의 의지와 百難不避의 확고 부동한 정신력이 없었다면 나는 다시 못을 永遠한 길로 가고 말았을 것이다.

五慾七情 중에서도 생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고, 희귀난치병인 세장염을 克服할 초인적 힘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셨기에 먼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더욱 誠實한 믿음속에 餘生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擔當할 수 있는 能力的 所有者로서 나의 삶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 각오이다.

현직 경찰관(전·의경) 원고 모집

지난 1970년 창간 이래 40여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찰 및 경우회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한편 전·현직 경찰인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경우신문이 함께 참여하는 신문으로 거듭 나기 위해 현직 경찰관들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詩·수필,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논평을 다룬 時論·提言, 취미나 건강 등에 대한 내용, 기타 경우신문 발행 취지에 적합한 내용.
※ 원고는 경찰 및 경우회 내용을 우선적으로, 채택된 원고에 소정의 원고료 지불
○ 분 량 : 2백자 원고지 6매 내외
○ 첨 부 : 본인 얼굴사진 1매
○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우신문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00 - 821
대표전화 (02)2234-1881, FAX (02)2231-7557

경우신문 편집부

장 학 기 금 모 금

경우장학회에서는 재단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과 희망찬 전진을 위해 장학기금 20억원 조성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원님과 독지자의 후원에 힘입어 많은 기금을 확충하여 매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립된 자본금의 이자 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도 (제30기) 장학생을 위하여 뜻있는 독지자의 적극적인 기탁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액 제한 없음)

정관에 의한 예우로서 5,000만원 기탁자는 1명, 1억원 기탁자는 3명의 장학생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수혜를 드립니다. (장학생 대상은 전·현직경찰관 자녀와 기탁자가 추천한 일반 학생)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 전 화 : (02) 2232-9999
• F A X : (02) 2231-5065

재단법인 경우장학회 이사장